

탈석탄동맹(PPCA) 선언문

2015년, 전 세계 각국은 청정 성장에 박차를 가하고 파국적 기후변화를 막기 위한 조치를 취하기로 약속하며 '파리기후변화협정'을 체결했습니다.

석탄화력발전소는 오늘날 전 세계 전력 생산의 40% 가까이 차지하며, 석탄의 탄소 오염이 기후변화의 주범이 되고 있습니다.

호흡기 질환과 조기 사망 등, 석탄 연소로 인한 대기 오염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인적·경제적 측면에서 막대한 비용을 초래합니다. 분석에 따르면 석탄 연소로 발생하는 오염으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매년 80만 명 이상이 사망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탄소저감장치가 없는 석탄발전소의 단계적 폐지는 지구 온도 상승을 2°C 미만으로 유지하고 1.5°C로 제한하도록 노력한다는 공약을 이행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취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단계 중 하나입니다.

파리협정 목표를 준수하기 위해 **분석에 따르면 OECD 국가와 EU의 경우 늦어도 2030년까지**, 나머지 세계에서 늦어도 2040년까지 석탄의 단계적 폐지를 달성해야 합니다.

풍력·태양광 발전 비용이 급락하며, 전 세계적으로 점점 더 많은 관할구역에서 청정전력을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전 세계의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는 이제 신규 석탄화력발전 투자를 훨씬 상회하며, 청정 성장은 수조 달러 가치의 투자 기회를 제공합니다.

저탄소·기후회복력 있는 경제로 전환하는 국가들은 이미 환경적, 경제적, 건강적 측면에서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탈석탄동맹은 이러한 전환을 가속화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탈석탄동맹(Powering Past Coal Alliance)은 탄소저감장치가 없는 석탄발전소의 신속한 단계적 폐지를 통해 청정 성장과 기후 보호를 가속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자 연합한 동맹으로, 정부, 기업체, 단체까지 다양한 주체가 가입되어 있습니다.

탈석탄동맹은 근로자와 지역사회에 대한 적절한 지원을 포함하여, 지속 가능하고 경제적으로 포괄적인 방식으로 단계적 폐지를 달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 **정부 회원은 탄소저감장치가 없는 기존 석탄발전소의 단계적 폐지와 관할구역 내에서 탄소 포집·저장(CCS)방식이 배제된 모든 신규 석탄발전소에 대한 모라토리엄을 약속합니다.**
- **기업 및 비정부 회원은 석탄을 배제한 전력 생산을 약속합니다.**
- **모든 회원은 (공기관 또는 기업을 불문하고) 정책과 투자를 통해 청정 발전을 지원하고, 탄소저감장치가 없는, 즉 탄소 포집·저장(CCS)방식이 배제된 석탄발전소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제한하기로 약속합니다.**

목표 달성을 돕기 위해 탈석탄동맹 회원들은 기후금융을 포함하여 탄소저감장치가 없는 석탄발전소의 단계적 폐지를 지원하기 위한 실제 사례와 모범 사례를 공유하고, 청정에너지 계획과 목표 개발을 포함하여 이러한 전환을 도모하기 위한 실질적인 이니셔티브를 채택하도록 협력합니다.

미래 세대를 위해 더 나은 세상을 만들 수 있도록 더 많은 단체가 **탈석탄동맹에 가입**하도록 촉구하고 있습니다.

탈석탄동맹(PPCA) 선언문은 원래 2017년에 동맹이 출범하면서 발표되었습니다. 석탄의 단계적 폐지에 대한 야심 찬 행동을 보여주는 국가를 회원으로 맞이하기 위해 2019년에 선언문을 업데이트했습니다. 비 OECD 국가의 탈석탄 일정을 2050년에서 2040년으로 앞당기고, 지구 온도 상승을 1.5°C로 제한하는 데 필요한 수정된 일정을 반영하기 위해 2022년에 선언문을 추가로 수정하였습니다.

선언문의 영문 버전이 정본이며, 모든 번역본은 접근성을 위해 사용합니다. 다른 언어 버전 간에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 영문 버전이 우선합니다.